| 현불 논단 |

조국 사태와 연기적 정의론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韓사회 뒤흔든 조국 장관 문제
정의론 다시 생각해 볼 계기돼

현대 정의론, 계몽주의와 연결
완전한 정의 · 제도 구축에 초점
한국 주류 정의론 밀접히 관계

센의 '연기적 정의이론'에 주목을
완벽한 정의 · 제도, 현실상 불가능
실현가능 선택 속 不正義 줄여야
연기적 현실서 실천적 정의 탐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의 청문회에서 표출된 일련의 과정은 이 땅의 사람들을 열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법무장관에 임명된 후에도 열병은 계속되고 있다. 정치적 이슈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친구도 거침이 없어졌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 라고 하면서.

매스컴들은 '조국 열병' 의 원인과 처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개인의 도덕성과 가치관에 중점을 둔 '개인 윤리적 차원' 과 사회구조와 제도의 도덕성에 관심을 가진 '사회 윤리적 차원' 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금 한국의 집권 세력은 '정의의 아이콘' 으로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였고 '정의의 레토릭' 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앙에 조국 장관이 있었다. 조국 장관 청문회의 과정에서 정의는 특정집단과 계층의 전유물이 되어 버렸고, 동시에 조롱과 냉소의 대상으로 되고 말았다. 그것이 왜곡된 것이라 하더라도 매우 불행한 일이다.

'정의' 는 인류 관념사에 제일 큰 주제이다. 오늘날의 현대 정의론은 유럽 계몽주의의 전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전통은 완전한 정의와 공정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존 롤스의 정의론이다. 한국에서의 주류 정의론도 이 틀에 서 있다.

하지만, 필자는 유럽 계몽주의의 전통에서 비켜서서 비서구사회 특히 인도와 타 지역의 지성사에서 나온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있는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의 정의이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센은 인도 출신으로 불평등과 빈곤연구의 대가이자 후생경제학의 거목으로 아시아 최초의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산스크리트어에 해박하며 십대부터 붓다의 지혜에 매료되어 자신의 정의이론에 접목시키고 있다.

센은 완전한 정의와 완벽한 제도에만 골몰하는 주류 정의이론을 실제 사회에 대해 무관심한 '가상' 의 이론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성향을 가질 위험성을 지적한다. 그는 사회적 현실을 직시하여 가치판단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비교접근을 통해 부정의를 제거해 가는 실천적 방식으로 정의를 촉진하자고 제안한다.

센에 의하면 '정의' 를 정의하는 기준은 다원적일 수밖에 없으며 부정의를 제거하고 방지할 완전한 제도의 구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완벽한 정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적 현실을 직시하며 실현가능한 선택지들을 비교하면서 부정의를 줄여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 주장한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 세계에서 무엇이 완전한 정의이고 무엇이 완벽히 공정한 제도인지 판별하는 '이론' 은 필요하지도 충분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주류 정의론에서는 계속 아트만(Atman)을 찾고 있고, 그 아트만은 정치적 깃발로 기능할 것이다. 센의 정의론에서는 아트만이 없다. 제행무상의 연기적 현실 속에서 실천적인 정의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센의 이론은 기존의 편협한 '이론' 을 대체해야 할 실천적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필자는 센의 최근 저서 〈정의의 아이디어(The Idea of Justice)〉를 읽으면서 센의 정의론을 '연기적 정의론' 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센은 '왜 우리는 밤에도 깨어 있어야 하는가' 라는 글에서 우리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할 때 정의의 실현이 가까이 다가온다고 절규한다. 정의는 결코 점령해야 할 고지가 아니라 이 대지에서 실현할 과제이다. 정의는 어느 집단이나 계층의 독점물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할 대상이다. 그래서 정의는 바른 민주주의에서 자란다. 밤잠 설치며 고뇌하는 정의론자가 이 땅의 정치판에 있기는 한 것인가?



천미희의 **환경칼럼**

살처분, 욕망이 빚어낸 비극

"돼지고기 값이 올라가겠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연일 전해지니 사람들은 돼지고기값 폭등을 우려한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살처분' 으로 돼지의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 폭등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의 지극히 당연한 걱정이긴 하지만 돼지의 입장에서는 치사율 100%의 병이 퍼지고 있는 것이니 생명이 달린 문제이고, 돼지농가의 입장에서는 애써 길러온 돼지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절박한 처지다.

동물 전염병이 확산될 때면 방역 대책으로 나오는 '살처분' 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무척 살벌하다. 광우병과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도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많은 소와 돼지가 살처분 됐다.

살처분은 당하는 동물만큼이나 그 현장을 지켜봐야 하는 공무원, 수의사 등 사람에게도 고통을 준다. 사체를 묻거나 또는 살아있는 생명이 묻히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정신적 고통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심각하다. 또한 구덩이를 파고 비닐을 깔고 묻는 일반 매몰 방식을 취하면서 살처분으로 인한 매몰지 오염도 피할 수 없다.

2017년 자료에 의하면 가축 매몰지 오염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에는 4500여 곳에 이르는 매몰지가 있다. 그 중의 수많은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기도 하고 미처 분해되지 않는 사체 일부가 땅밖으로 드러나기도 하며 토양이 검게 썩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전염병은 막았지만 살처분은 토양 · 수질오염 등의 환경 문제를 야기하면서 또 다른 환경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3년이면 자연분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매몰지 관리 기준을 3년으로 정해 놓았지만 규정보다 많은 돼지를 묻었기 때문에 분해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문제는 더욱 장기화 되고 있다. 추가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침출수를 빼내는 오염방지 시설도 갖추어야 하고 미생물을 활용한 자연 발효나 사체 소각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행이 쉽지 않다고 한다.

급속도로 퍼지는 동물 전염병이 돌 때마다 엄청난 수의 생명을 매장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생명 가치도 함께 묻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동물 전염병 발병 원인이 축약식 축산에서 기인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축약적인 축산환경이다. 게다가 극단적 이윤 추구를 위해 사료비를 낮추기 위해 오염된 음식물을 사료로 이용하면서 광우병, 구제역이 생긴 것만 봐도 이윤 추구만을 쫓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제 2, 3의 광우병 발생 가능성을 안고 사는 셈이다.

동물 복지를 무시한 축산 방식이 전염병을 불러오고 그 전염병을 막기 위해 또 다시 동물 복지를 무시한 살처분이라는 대책으로 일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들을 묻는다고 끝나지 않는다. 이제라도 동불 복지를 고려한 축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물 백신 개발, 방역 확대 등 전염병 예방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맛있는 것을 더 많이 먹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끝없는 욕심이 있는 한, 축산 동물을 먹이로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있는 한, 무분별한 살처분은 계속될 것이고 이는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환경 피해로 돌아올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社 說

제12대 전국비구니회장에 바란다

조계종 제12대 전국비구니회장에 본각 스님이 당선됐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9월 18일 서울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제12대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직선제를 통해 제12대 회장으로 본각 스님을 선출했다. 본각 스님은 총 1880표 중 1064표를 얻어 789표를 얻은 경쟁후보 육문 스님을 제쳤다.

이번 선거는 총 1910명이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총 유권자인 6000명의 비구니 스님 중 1/3이 참여한 것으로 이번 선거에 대한 비구니 스님들의 관심을 알 수 있게 했다.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본각 스님의 첫 일성은 화합이었다. 본각 스님은 "우리 모두는 한 방울의 물이다. 전부 흘러서 강을 만들고 바다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넓은 법의 바다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갈라졌던 마음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스님의 일성은 선거전이 후반으로 갈수록 과열 양성을 보였던 만큼 갈등을 뒤로 하고 한국불교와 비구니회의 발전을 위해 비구니회 대중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한다는 당부이기도 하다.

실제, 본각 스님의 우선 과제는 이번 선거 과정의 파열음을 잘 정리하고 화합하는 것이다. 조직의 화합이 이뤄져야 본각 스님이 제시한 △현실적 복지체계 구축 △인재육성 활용방안 마련 △항상 열린 전국비구니회 △사회문제 능동적 대처 △시대 선도라는 5대 공약의 성공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선거가 끝난 만큼 상대 후보 측도 결과에 승복하고 비구니 승가 화합에 동참하며 힘을 합쳐야 한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 는 속담처럼 전국비구니회의 한국불교 발전의 단단한 반석이 되길 바란다.

Z세대 포교, 종단 차원 확대를

현재 10대를 이르는 말이 있다. 바로 Z세대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미디어에 익숙한 이들은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 로 불린다.

유튜버, 각종 미디어 크리에이터 등 뉴미디어의 주축 세대가 바로 이 Z세대다. 최근 모바일 데이터분석 플랫폼인 앱애니에 따르면 2020년 Z세대가 미디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상 절반 가량의 미디어 생산과 소비를 이들 세대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세대를 불교신자로 끌어 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불교가 접근하는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이 올해 대불련, 대불청과 함께 주최하는 뉴미디어 영상 공모전은 큰 의미를 지닌다. 포교원은 지난해부터 웹툰 작가를 비롯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를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하고 올해 8월에는 불교SNS콘텐츠 발생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문제는 종단 차원의 관심이다. SNS크리에이터 양성이나 콘텐츠 장려는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업 자체를 보면 미약하기 짝이 없다. 총 상금 300만원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래세대 포교를 위해서는 포교원 수준을 넘어 종단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봉은사는 지역 영화관과 신도 멤버십을 체결했다. 다소 이색적이지만 청년세대를 사찰로 이끌겠다는 것이다.

사회는 정보의 보편화와 시민참여의 증가로 빠른 속도로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불교는 이런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젊은 생각, 과감한 지원을 통해 불교 스스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